

史學科 教育의 현황과 발전 방향

林 志 炫

(漢陽大 史學科)

1

歷史學은 인류가 성장·발전해 온 자취를 더듬어 밝히는 학문이다. 역사학이 인류의 발전과 더불어 유구한 전통을 지닌 학문으로 자리잡게 된 것도 이와 같은 학문적 특징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학의 목적은 단순히 과거를 재현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실들을 매개로 현재를 밝히고, 나아가 미래를 조망하는 데에 있다. 즉 역사학의 效用價値는 微視的이고 即自的인 형태로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巨視的이고 對自的인 안목에서 확인되는 것이다.

역사학이 단기적으로는 可視的 結果를 맺지 못하고 또 技術的 實用性을 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구한 전통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거시적 측면에서 지니는 효용 가치 때문이다. 그 결과 역사학은 儒敎精神에 입각한 동양의 '經史一體'의 교육 전통과 르네상스 이래 서양의 전통적 교과과정인 人文 課程(Studia Humanitatis) 속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학은 開化期에 신교육이 도입된 이래 전문학교 또는 대학 수준의 高等教育 과정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대학에 정식으로 사학과가 개설되고 역사교육이 한국인 교수진에 의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

은 1945년 해방 이후의 일이었다. 1946년 서울대에 사학과가 설치된 것을 필두로, 1947년에는 延世大, 高麗大 등에 사학과가 설치됨으로써 대학의 역사교육은 정상적인 궤도에 접어들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1988년 기준)에는 사학과 49개 학과, 역사교육과 18개 학과, 기타 19개 학과(국사학과 10, 국사교육과 4, 동양사학과 1, 서양사학과 1, 사회교육과 3)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에 접어들어 오늘날 역사학의 뿌리깊은 교육 전통은 사학과와 외면적·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바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역사학 혹은 역사교육의 퇴조 현상은 이미 高度화된 産業國家들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지만, 그것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건강한 均衡感을 결여한 체 지역적 전문 지식만으로 무장한 전문가들을 양산할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없다.

현재의 産業化 趨勢를 고려할 때, 한국 대학에서의 역사교육은 향후 몇 년이 중요한 고비가 될 것이며 역사학계가 이 흐름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 그 질과 내용이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것은 비단 역사학의 學問的 將來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이 한국 사회의 健康性을 확보하는 데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의 문

제를 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 의식에서 현행의 사학과 교과과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과편성의 비판적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교수 방법 및 학과의 조직과 운영이라는 폭 넓은 맥락에서 그 改善方向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학과와 교육 현황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역사교육의 목표를 설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그것은 教育目標의 設定方向에 따라 教科課程의 내용이 규정되고 또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한 教授方法의 문제 등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역사교육의 목표는 일단 학생들에게 歷史的으로 思考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추상적으로 정의된 교육 목표는 歷史的 思考能力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그것이 지니는 효용 가치는 어떠한가라는 의문에 대한 해명이 뒤따르지 않는 한, 명확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특히 效用性에 관한 한, 역사학은 사회과학이 지닌 현실적 효용성을 어느 정도 공유하면서도 即自的 現實性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現實性과 學問性을 포괄하는 역사학의 독특한 입지점은 바로 이 점에서 발견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대학의 역사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人文的 素養을 함양시킨다는 전통적 교육 목표를 들 수 있다. 인간 및 인간 사회에 대한 巨視的이고도 綜合的인 眼目을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의 역사적 교양은 사실상 19세기까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역사교육의 가장 확고한 목표였다.

둘째, 歷史的 思考能力은 現實에 대한 問題提起 能力을 내포하며, 따라서 역사교육의 목표는 건강한 社會意識과 均衡感覺을 갖춘 知性人을 배출하는 데 두어져야 한다. 이러한 목표는 역사학의 實踐性에 근거를 둔 것인데, 역사학과 현재와의 有機的 關係를 강조하는 입장이다.

셋째, 역사학의 實用性과 관련하여 專門性의

提高라는 목표를 들 수 있다. 이것의 중요성은 일차적으로 대학의 사학과가 중·고등학교의 예비 역사 교사를 양성하고 또 전문적 교육 기관인 대학원 등에 진학하려는 학생들에게 전문 연구를 위한 기초 지식을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또한 이것은 사학과 졸업생들이 치열한 생존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라 하겠다.

이러한 세 가지 목표 중 어느 일방에의 강조는 각각 好古主義的 傾向, 의식 과잉의 非學問的 접근 방법, 歷史的 洞察力을 喪失한 단순한 기능인의 창출 등을 결과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再考되어야 한다. 역사교육은 人文的 素養의 涵養, 現實的 問題提起 및 專門性의 提高라는 3대 목표가 균형있게 어우러질 때 비로소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일 뿐이고, 이와 같은 원칙이 실제 教科課程의 編成時에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토의를 요하는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한편 이와 같은 관점에서 서서 현행의 각 대학 사학과 교과과정을 개관할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첫째, 교과목의 절대 수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사학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서 제시된 통계에 의하면, 연구 표본 10개 대학 중 2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8개 대학은 한국사·동양사·서양사 각 분야당 불과 10여개 안팎의 빈약한 교과목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빈약한 교과과정으로는 위에서 제시한 역사교육의 3대 목표 중 어느 하나도 충실히 소화해 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전공 필수 과목을 지정하는 데 일관된 원칙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 史學概論과 같은 기초 공통 과목을 제외하면, 분야별 전공 필수 과목의 선정은 공통점을 찾을 수 없을 만큼 극히 다양하였다. 이것은 물론 각 대학의 獨自性과 特殊性을 살린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便宜主義의 결과라고도 생각된다. 우선 필수로 지정된 과목 수가 분야당 1 과목에서 6 과목까지 학교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開選' 과목의 지

정 여부, 특히 시대사의 경우 古代史부터 現代史에 이르는 다양한 분포 등은 필수 과목의 지정이 便宜의이며 合理的 원칙하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드러내 준다.

셋째, 필수와 선택 분야를 막론하고 시대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역사상의 각 시대를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역사 이해에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시대사 과목이 이처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학과 교과목의 편성이 극히 초보적 수준에 있음을 의미한다. 시대사는 歷史像의 이해에 필수적인 교과목일 뿐이며 바람직한 편성은 시대사 과목들을 기초로 세분화되고 심화된 기초 과목들이 숫적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다. 특히 社會史, 經濟史, 知性史 등의 분류사 과목들의 全般的인 脆弱性은 우리나라 대학교의 사학과들이 얼마나 빈약한 교과과정 편성 내용을 갖고 있는가를 가장 극명하게 말해 주는 것이다.

넷째, 이것은 동양사와 서양사 분야에 한정된 것으로서 各國史 및 地域史 과목들의 偏重 현상을 들 수 있다. 즉 동양사의 경우에는 아예 중국사 위주의 교과 운영에 일본사 정도가 포함되어 있으며, 서양사의 경우에도 각국사 과목은 미국, 영국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는 형편이다. 이들이 동양과 서양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교과과정에 반영된 그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다. 歷史學의 地平을 넓힌다는 차원뿐만 아니라 現存的 觀點에서도 동남아시아사, 인도사, 중앙아시아사, 이슬람사, 동유럽사, 남유럽사에 대한 강의는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사나 라틴아메리카사 등 제3세계사 과목들도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지적할 것은 特講·練習·講讀 등과 같이 구체적인 강의 내용을 적시하지 않은 불특정 과목들이 시대사에 버금가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선택의 여지가 좁고 극히 제한된 수의 교과목들이 개설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특강이나 연습 등의 과목이 적절히 개설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과

목들은 사학과와 교과과정을 구조적으로 개편하지 않고도 그때 그때 社會的 要求나 學生들의 要請 또는 學界의 새로운 흐름에 瞬發力 있게 대응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특강이나 연습 등의 과목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더구나 教授陣의 事情에 따라 강의의 내용이 크게 다를 수 있고 또 실제로 새로운 흐름을 수용하여 강의하기보다는 便宜에 따라 恣意的으로 運營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과목 운영의 일정한 원칙이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현행 사학과 교과과정은 효율적인 역사교육이라는 측면보다는 現實的 制約要因에 따라 便宜의으로 편성·운영되는 듯한 느낌이 강하다. 현실적으로 역사 전반에 대해 다방면에 걸친 적절한 강의가 불가능하다고 해도 교과과정은 결코 편의적으로 편성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敎科課程이 일단 適切한 수준으로 編成되면, 당장은 그것을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다고 해도 여건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現實化시킬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다. 따라서 교과과정 편성시에 당장 실현 불가능하다고 해서 편의적으로 교과과정을 결정한다면 그것은 단견이 될 것이다.

3

사학과 교과과정 편성의 기본 방향은 현행의 교과과정에 대한 반성과 사학과와 교육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체적인 윤곽이 제시된 점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교과과정에 대한 批判的 檢討에 근거하여 사학과 교과과정 편성의 基本方向을 구체적인 항목별로 논하고자 한다.

● 교과목의 확대

개설 강좌 수의 확대는 대학의 역사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先決課題이다. 오늘날에는 지식이 세분화·고도화되어 있어 어느 한 영역에 대한 깊은 전공 지식을 갖추지 않고서는 사실 생존 경쟁 자체가 힘들게 되었다. 때문에 대학에서 어느 정도 深化된 專門敎育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심화된 전문교육을 위해서는 우선 敎科目的의 擴大가 요구된다. 교과목이 증설될 때, 바

로소 교과과정 운영에 융통성이 생겨 보다 細分化되고 高度화된 교과목 설치도 가능하며, 시대 변화에도 伸縮性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오늘날 대학교육은 시대와 사회의 요구를 반영하고 선도해야 하며 급변하는 사회 상황과 연구 동향을 신속히 교과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먼저 교과목의 대폭적인 증설은 불가피한 것이다.

● 한국사 및 동·서양사의 균형있는 선택

역사학은 그 성격상 다른 어떤 학문보다도 다방면에 걸친 폭 넓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것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즉 폭이 전제되지 않은 깊이는 歷史學의 本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정치학, 경제학, 고고학, 인류학, 지리학 등 인접 학문에 대한 기본적 소양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사 및 동·서양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두루 섭렵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세 분야 과목을 均衡있게 受講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가 요구된다. 이렇게 교과과정에서 역사학의 인접 학문 선택과 위의 세 분야에 대한 균형 있는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때 전공 학과 및 전공 영역 간의 閉鎖性·硬直性과 교과목 간의 連繫性 不足이라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역사학에 대한 기본 소양 및 각 분야의

개설에 대한 학습

인문적 소양의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각 분야의 개설은 歷史 理解의 基本型을 제시해 주는 동시에 각 文化圈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대한 比較史의 接近을 가능케 해준다. 또한 역사학은 확고한 개설 지식을 기초로 할 때 그 이해와 연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만큼 한국사·동양사·서양사 각 분야에서 충분한 개설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학생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따라서 각 분야의 개설은 I·II로 나누어 각각 3학점씩 6학점을 필수 과목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더하여 歷史學의 學問의 性格과 研究方法에 대한 理論的 探索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역사 이론과 역사철학, 연구방법론 등의 과목이 또한 필수 과목으로 부과되어야 할 것이다.

● 현대사 과목의 강화

역사학은 크로체의 말을 구테여 빌지 않더라도 現代史로서의 認識을 출발점으로 하는, 즉 현재적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출발하는 학문이다. 현대사 연구의 의의는 일차적으로 이 점에 있다. 뿐만 아니라 복잡 다단한 현대 세계의 現實을 診斷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치 속에서 우리의 位相을 올바르게 設定하기 위해서도 현대사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또 현대 세계에 대한 이해라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고·중세사와의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현대사 과목은 강화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사에 대한 연구는 전반적으로 지지부진한 형편이며, 전문 연구자도 거의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자격있는 현대사 교수가 거의 전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며, 따라서 국내 상당 수 대학의 사학과에서는 현대사 교육이 거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역사에 대한 학생들의 살아 있는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나 또 역사학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서도 교과과정은 현대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할 것이다.

● 시대사·분류사·지역사의 강화

현행 교과과정에서 時代史는 고대·중세·근대·현대의 구태의연한 4분법에 따라 강의되는 것이 통례이다. 이것은 개설을 便宜의으로 細分化한 것에 불과하며, 중요한 각 시대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時代史 本然의 목표에는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시대사 과목들은 각 時代의 特性에 맞추어 좀더 세분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류사 역시 현행의 교과과정에서는 한국사상사, 동양정치사상사, 서양경제사 등과 같이 요식적인 과목들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색을 맞추는 데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 分類史 강의는 시대사 강의와 더불어 다방면에 걸쳐 전문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좀더 多樣하게 設講될 필요가 있다.

한편, 地域史 과목의 強化라는 문제는 동양사와 서양사가 함께 안고 있는 문제이다. 즉 동양사의 경우에는 중국사와 일본사 그리고 서양사의 경우에는 미국 및 서유럽 지역에 교과목이 편중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동양사와 서양사가 이들 특정 국가의 편중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동양사 및 서양사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폭 넓은

地域史 研究의 活性化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사, 분류사 및 지역사 강의의 폭을 넓히고 專門性을 深化시킨다면, 그것은 결국 학생들의 관심과 폭을 확대시키고 多樣的 知的 욕구를 充足시킬 수 있음은 물론 넓은 視野를 통한 歷史像을 그들에게 정립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 문헌 및 사료 해독 능력의 제고

역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사료 해독에서부터 출발한다. 때문에 原典이나 史料解讀能力을 키우는 것은 研究의 基礎를 다지는 일이며, 또 專門性의 提高라는 측면에서도 장차 전문 연구 인력을 배양하기 위한 선결 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문 사료의 해독 능력이나 서양의 고전어 및 영어를 필두로 독어, 불어, 러시아어 등의 제 2 외국어가 각별히 요구된다. 이러한 요청은 물론 강독 과목을 통해서 일단 충족되었지만, 그 외에도 교양 과목 차원에서 사학과 저학년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두 가지 이상 필수 과목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 학생 스스로가 연구하는 교과목의 설치

敎育의 專門性을 提高하고 학생들의 關心 폭을 다양하게 誘導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강의에만 의존하여 역사 지식을 습득하는 단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학생들 스스로 探索하고 探究하는 學習 자세를 갖도록 세미나 방식의 강의가 요구되는 것이다. 현행 교과과정의 특강 또는 연습이 이에 해당된다. 물론 이들 과목들은 원전이나 사료 해독 능력을 전제할 때, 비로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 위에서 고학년의 학생들에게 探究式 學習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고, 이것을 졸업 논문 작성과 연결되도록 지도한다면 더욱 내실있는 강의가 가능해질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졸업반 학생들에게 대학원 초급 과목의 문호를 개방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겠다.

교과과정은 대학교육의 핵심적 구성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교육 현실을 定型化된 형태로 반영할 뿐이다. 따라서 사학과 교육 현실을 綜合的으로 파악하여 發展方向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교수 방법의 문제, 조직과 운영의 문제 등이 아울러 고찰되지 않으면 안 된다. 교과과정의 개혁도 이러한 제반 여건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敎科課程의 改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으로는 강의 조교(T.A.) 제도의 도입을 통한 세미나 강의의 적극적 활용, 문화사나 개설과 같이 강의 범위가 넓은 과목에 대한 集團敎習(team teaching), 교재와 부교재의 創意的 開發, 학과간·대학간 학점 교환 제도, 연구 도서관의 풀(pool) 시스템 제도의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보조적인 것에 불과하며,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역시 專任教員을 확보하는 문제이다. 적정 수의 전임 교원이 확보되지 않는 한, 교과과정이나 교수 방법 또는 조직과 운영 면에서의 개혁은 결코 講義의 內實化와 직결되지 못할 것이다. 사학과 敎科 內容은 사실상 3개 학과에 해당되는 다양한 과목들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또 문화사와 한국사가 敎養課程의 中樞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사학과 전임 교원 수는 최소한 12~15명 선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학의 歷史敎育을 改善하기 위한 전 문적이고 기술적인 세부 방안들은 국가의 문화 정책 전반 또는 역사학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태도 등 좀더 構造的이며 根本的인 次元에서 그를 위한 뒷받침이 있을 때 비로소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社會的 支援의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